

2009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윤곽 드러나

- 기본계획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



충청남도과 충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9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주식회사 프록스는 6월 8일 꽃박람회 개최될 안면도 꽃지에서 열린 자문위원회에서 '꽃과 바다의 향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공원 및 휴양림 일원 약 793천㎡(24만평)에서 2009년 4월 하순부터 5월 중순까지 27

일간 박람회 개최가 바람직하며 100만명이상 관람객이 방문하고 사업비는 1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용역업체는 보고를 통해 천혜의 조건을 갖춘 안면도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데 중점을 두면서 쾌적하고 즐거운 관람이 될 수 있도록 관람객 위주의 회장조성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제전시관을 비롯한 3개의 기획전시관과 2개의 산업전시관, 11개의 주제정원, 3개소의 공연시설을 제안하면서 다른 박람회에서 느끼지 못할 감동과 환희를 보여 주도록 독특한 전시연출 구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날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내 다시 한번 자문위원회에 보고하고 자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 앞서 충남개발공사 홍인의 사장은 분야별 전문가 16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인사말을 통해 “2009꽃박람회는 2002년 꽃박람회의 시각과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획기적인 발상전환을 통해 안면도에서만 느낄 수 있고 꽃을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올 상반기중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추진기구 설립과 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박람회 성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박람회장 예정지를 둘러본 자문위원들은 울창한 안면송이 바다와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2002년 꽃박람회에 버금가는 대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완벽한 교통대책 수립과 주차장 확보를 비롯한 편의시설 설치는 물론, 국제수준의 전시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지난 2002년도에 24일간 개최된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32개국 178개 업체 참여와 4,617천불의 수출계약이 이루어지고 164만명의 관람객이 찾았으며 잠자고 있던 천혜의 수려한 경관의 안면도를 국제적 휴양관광지로 각인시키면서 서해안의 문화·관광의 중심지역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었다.

2007 충남·경기 상생발전 워크숍 개최

- 수출유관기관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 참석, 통상지원 업무협력 모색 -

충청남도는 6월 4일 안면도 오션 캐슬에서 충남·경기 양 道의 통상지원 업무협력 및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 道 수출유관기관 관계자 및 통상담당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상생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올해 세 번째로, 지난 2005. 1. 27일 '충남·경기 상생 발전협약'에 따라 매년 순회 개최하며 양 道의 수출 지원기관과 통상담당 업무 공무원의 교류를 통한 협력강화와 시책 소개 및 벤치마킹을 통한 실무 능력 함양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 각 지역의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한 수출확대 및 한국기업의 성공적 진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정책특강과 양 道 공무원의 통상 지원 분야 연구 과제 및 발전시책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충남도는 '맞춤형 토털마케팅'이란 주제 발표를 하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무원의 국제교역 및 투자 마인드 함양에 기여하고 양 道간 공동협력 방안을 이끌어 세계시장에 한발 앞서가는 통상정책을 펼치겠다는 다짐의 장을 가졌다.

또한, 이번 워크숍은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능동적 경제 공무원의 행동철학의 정립과 함께 한미 FTA협상 타결 등으로 급변하는 수출 및 기업환경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국제통상업무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國品制世』 : 충남 인삼산업, 한국에서 세계 중심으로!

- 5. 28(월), 충남 인삼산업 발전 대토론회 개최 -



충청남도도는 5. 28(월) 오후 2시부터 금산다락원에서 이완구 도지사와 800여명의 인삼산업인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충남인삼산업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인삼산업의 중심지인 충남도가 최근 저가 외국삼의 공세와 한미 FTA 타결 등으로 인삼종주국 한국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는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인삼산업의 수호와 재도약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관한 인삼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농림부 관계관의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인삼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이어 충남도에서 충남 인삼산업, 한국의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를 슬로건으로 한 '충남인삼산업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으며 인삼산업 관계자들과 이완구 지사와의 대화가 이어졌다.

이날 발표된 '충남인삼산업종합발전계획'은 오는 2011년까지 5년동안 모두 3,0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산·가공·유통시스템 혁신, 외국삼 공세에 강력 대응,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인삼을 주제로 하는 건강도시 육성, 지역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5개 분야에 걸쳐 5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리 인삼의 국제적 위상 재정립을 위하여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국제인삼표준센터 및 세계인삼정보센터 유치 등을 통하여 국제인삼산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을 위하여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및 계약재배 면적 비율을 22%에서 90% 수준으로 제고 시키며,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단보당 수확량을 현재 598kg에서 700kg으로 끌어 올리며 우수상품 생산을 위하여 26개 전 수출기업에 대한 GMP(우수식품 제조 및 관리 기준) 시설사업 추진과 인삼기술 로드맵을 작성하고 산학연 협력 사업을 통하여 모두 50개의 신상품·신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다양한 체험·음식·쇼핑 등을 결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인 인삼관광객을 7,500명에서 10만명으로 대폭 증가시키게 된다.

신규소비를 대량 창출할 수 있는 대형 유통업체 및 제약업체 등의 참여를 통하여 국제인삼교역전 성과를 2,200만불에서 5,000만불로 늘리고 국가별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 개발과 전략적 마케팅을 통하여 수출액을 60백만불에서 150백만불로 증대시킬 예정이다.

또한, 연간 거래액 6,700억원으로 세계 최대의 인삼약초 전문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금산에 인삼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하여 인삼의 본고장 금산을 국제적 건강도시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충남도는 중앙과 도, 시·군, 민간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인데 우선 폭넓은 국가적 공감대 형성과 중앙의 원활한 지원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언론사 및 학술재단 등과 공동으로 인삼산업발전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충남인삼산업발전에 관한 의지를 밝히고 세계화 촉진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주요한 사업들이 차기 정부에서도 국가전략사업으로 채택되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충남도, 도민생활체육·문화축제 개막!

- 18일부터 사흘간 논산시 공설운동장등 21개 보조경기장에서,
생활체육동호인 등 15,000여명 참석 -



충청남도과 충청남도생활체육협
의회는 ‘참여해요 생활체육, 함께
해요 희망충남’,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의 구
호아래, 논산시 공설운동장에서 도
내 생활체육동호인과 주민, 이완구
도지사, 유관기관·단체장, 선수
및 임원 등 1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6회 도민생활체육·분
화축제’가 성대하게 개막됐다.

이번 축제는 생활체육 동호인 간 유대감 조성 및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일체감을 조성하고 가
족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 활력을 심어주고 화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도민 생활체육·문화축제는 축구, 배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16개
정식종목과 씨름 등 5개 전통종목 등 총 21개 종목의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을 통
하여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건강증진을 위해 평소 갖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겨루게 된다.

이날 이완구 도지사는 치사를 통하여 “생활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지역단위 생활체
육보급 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범 도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충남도간 업무협약 체결

- 백제문화의 발굴·정비·복원 및 문화유적의 세계화 노력 -



충청남도지사(이완구)는 5월 10일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문화재청장(유홍준)과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문화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도와 청간의 MOU를 체결했다.

이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발전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광역자치단체 장과의 '문화재 행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충남도가 문화재청과 처음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문화재행정에 대한 도와 문화재청간의 교감을 갖는데 의미가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문화재청과 충남도는 문화유산 보존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문화재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문화재청은 백제 고도인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많은 역사유물이 산재하고 있어 원형의 보존과 함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등에 많은 무게감을 실어 지원하며, 공주·부여를 역사문화도시로 조성·육성하여 쾌적하고 활기 있는 문화·관광도시로의 개발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문화재 정책 수립·집행에 노력하며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발굴·정비·복원을 통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유적의 세계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도는 지방문화재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에 노력하고, 문화재청은 이에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지원과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등 민간협력 저변을 확대·강화 ▲각종 재난 시 효율적 문화재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 정책 프로세스에서 탈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쌍방 소통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도에서는 향후 백제문화유적 및 내포문화권의 사업추진과 유교문화유적 정비사업 등 현안 사업의 추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5. 11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지방문화재 행정의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강원권 문화재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재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문화재 정책의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행정역량 강화 및 상생적 파트너 관계 설정을 통한 문화재 발전방안 모색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재 행정 관심도 제고 및 실무담당자 사기진작책 마련을 위해서 4개 권역(충청·강원권, 수도권, 호남·제주권, 영남권)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충남도, 전국 최초로 '물 통합관리' 선언!

- 충남 수질 II등급 목표달성을 위해 4대 정책목표와 42개과제 선정추진 -



충남도는 부처별 물관리 정책 추진에 따라 그동안 농림수산물·복지환경국·건설교통국 등 3국 7과에서 관리하던 물 관리를 총괄 하는 '물 통합관리본부'를 설치하여 수질선진을 이끈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 통합관리 선언식'을 5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홍준석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소준섭 금강유역환경청장, 김문규 도의회 의장, 김용익 한국농촌공사 충남본부장,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제1부 '물 통합관리 워크숍', 제2부 '물 통합관리 선언식'으로 진행됐으며, 제1부 워크숍에서는 물 관리전문가, 유관기관, 환경단체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이 본부장으로 '물 통합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으며

제2부 '물 통합관리 선언식' 행사에서는 물 통합관리 민관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한국과학기술원 신항식 교수를 비롯한 위촉직 위원 12명에 대하여 이완구 도지사가 위촉장을 수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이덕성 수질관리과장은 "그 동안 3국 7과 및 보건환경연구원 3과에서 추진하던 물 관리 업무를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본부'를 발족하면서 물과 관련된 업무를 통합관리 본부에서 조정·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를 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대전시민환경연구소 최충식 실장은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본부가 빠른 시일내 명실상부한 물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물 관련 예산의 조정권한, 의사결정권한, 심사위원회의 귀속 등이 있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권한이 본부로 이관된 후 별도의 조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신항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본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주제로 충청남도 수질총량센터 이상진 센터장, 한국수자원공사 임성호 수도계획팀장, 한국농촌공사 충남본부 박성철 유지관리팀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성낙선 하천계획과장, 삼교호 수계네트워크 김병빈 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토론이 있었다.

도는 충남 수질 II등급 목표달성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센터 설치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지속 확충·정비하며 ▲광역 및 지방상수도사업 추진 ▲농업용 저수지, 담수호 등 호소 수질개선대책 추진 및 환경친화적 하천관리 등 4대정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한편, **李** 지사는 인사말에서 “전국최초로 시도되는 물 통합관리본부를 정점으로 관련 부서간의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내의 모든 하천가 호소 등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우리도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면서 도민들께서 물 절약과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물 통합관리본부에서 도내 모든 하천과 저수지, 상·하수도 등 물 관리업무를 통합·조정하여 도내 수질목표인 2등급 달성을 조기에 이루어 200만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국가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충남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도 수질오염 예방과 절수운동을 생활화하여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봉주선수 ‘충청남도 홍보대사’ 위촉

- 충청인의 은근과 끈기 표상, 문화·관광·체육 홍보대사에 -



충청남도는 4월 1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완구 도지사와 김문규 도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라토너 이봉주선수를 충청남도 문화·관광·체육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앞으로 이봉주 선수는 충남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각종 행사 및 도정에 대한 홍보

등 민간대사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펼쳐 나간다.

도는 이봉주 선수가 제105회 보스톤마라톤대회와 2007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하여 도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전 국민의 인지도가 높고 충청인의 은근과 끈기의 표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등 도의 문화·관광·체육홍보의 적임자로 판단하여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완구 지사는 인사를 통해 “우리지역에서 이봉주선수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존재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며 더 큰 노력과 훈련을 통해 한국마라톤의 위상을 지켜 나가달라”고 당부하며 “충남의 문화·관광·체육분야의 대외 홍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촉식에는 이봉주선수의 가족과 도청마라톤 동호회인 마사도모 회원 등이 참석,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충청남도과 경상북도 MOU체결

-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협력」 다짐 -
-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 제정 공조체제 구축 -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

□ 백제의 본산지 충청도와 신라의 근원지인 경북도가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

- 4월 12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는 이완구 충청남도지사와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김문규 충청도의회 의장과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 등 兩道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이번 MOU 체결은 충청도와 경북도 모두가 현안과제로 삼고 있는 「도청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

- 兩道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도청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사업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협력해 나가 발전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

□ MOU체결 내용을 보면 兩道가 공동 체제를 구축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을 금년도 내에 제정한다는 것이 특징

- 이 법안은 도청소재지가 관할구역 밖의 원거리에 위치함으로써 초래되는 도민들의 불편과 도청이전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의 직접적인 문제 외에도

- ① 참여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중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분산정책과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 ② 또한 기존에 정부 지원으로 도청을 이전한 「전남도」와 「전북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법 제정이 필요

□ 이에따라 제정될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 ①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사업 추진기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로 기간 단축을 이루도록 하였고,
- ② 특히, 2005.1.1일 “중액교부세 폐지”로 정부지원이 없어짐으로써 전남도와 전북도의 도청이전 사업비를 지원했던 국비지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면서
- ③ 입주시설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감면, 시설비 지원·융자, 그리고 종사자 이사비용 지원과 주택마련에 우선권 부여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

□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면서

-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분권·분산」과도 일치하는 만큼 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
- 충남도와 경북도 출신 의원들이 함께 나서서 공동발의에 임한다면 법안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피력

□ 한편, 충남도와 경북도는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 兩道 출신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발의토록 할 계획이며
- 국회 입법발의를 통해서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